

데스크 시각

20대 총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김 일 환 편집부국장

본보와 춘추사(전국 대표 지방지 9개 사)로 연을 맺고 있는 대구 지역 '매일신문'의 한 기자가 쓴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9월에 실린, 한참 지난 칼럼이지만 작금의 호남에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호남과 DJ, TK와 박근혜'라는 제목의 글인데 내용은 이렇다. 기자는 매일신문의 'DJ(김대중 당시 국회의원회 총재) 마크팬'으로 1996년의 15대 총선 '호남 유세 투어'를 취재했다고 했다. 정읍에서부터 시작해 전주를 거쳐 광주와 나주 그리고

로를 뒤덮은 광경이었는데 기자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경험이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할 때면 'DJ와 호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DJ와 닮은 박근혜 신드롬

그리고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을 때와 과거 DJ 호남 유세 당시를 비교했다. 서문시장을 찾은 박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DJ의 호남 방문 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열기는 더 뜨거웠다고 했다. 또 대구 사람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와는 다른 것이라 했다. 스타를 바라보는 팬들의 열광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마치 20년 전 호남을 돌면서 느꼈던 '호남과 DJ'라는 조합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였던 박근혜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대구에서만쯤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퇴임 후인 2018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DJ가 호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어 호남이 처한 현상황에 대해 기자

는 매우 신랄한 분석을 내놓았다. 호남은 DJ 이후에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 정치권의 현주소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TK 정치권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는 호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머지않아 박정희·박근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동시에 미래를 열어 갈 재목을 길러 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그 기자의 지역관을 가타부타 따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소름 끼치게 와 닿은 것은 그 기자의 생각이 필자에게도 대갈 코마니의 반대편 그림처럼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반문했다. 정작 호남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를 아니 새로운 인재를 키우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올시다"다.

호남 차세대 주자 키워야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를 찾은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 호남 인물의 부재로 인해 강한 정통야당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기자의 지적이나 박 전 원내

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안다. 당장 호남을 대표할 정치인을 손꼽으라 하면 누구 한 사람 들어 말하기기가 어렵다. 비교우위보다는 비교열위를 따져야 한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호남인의 손으로 키워 낸 대표주자가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호남은 작금의 야당 분열이나 새로운 신당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것 같다.

총선의 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호남을 대표해 국가가 이끌어 갈 선량들을 뽑게 된다. 호남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민의를 보여 줄 것이다. 위기 때마다 빛났던 '광주정신'으로 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다 생각 깊은 판단과 선택이 요구된다. DJ 이후 명맥이 끊긴 차세대 정치 지도자와 신인들을 발굴하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를 깨우치한다면 호남의 정치는 물론 미래도 없다. 두 눈 부릅뜨고 꼼꼼히 따져 보고 옥석을 가려내어 다음 세대 호남을 이끌어 갈 동량들을 뽑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은편클럽

응답하자! 마을공동체



류 동 훈 광주시 광산구 주민자치과

의 장작불이 이제는 연기만 남아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시정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한 이유는 지난 시절의 추억을 찾아왔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따뜻한 마을공동체다. 쌍문동 골목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친구로 자라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모두 자기 자식처럼 함께 아끼며 키운다. 아이들도 서로 형제처럼 정을 나누며 어울렸다.

택이가 중국에서 바둑대회 나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은 가슴 졸이며 승전보를 기다리고, 덕선이가 대입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 점쟁이 말에 따라 동네 사람들은 '수연이'라고 불러 줬다. 핑키를 좋아 하는 진주에게 바나나를 나눠주고 저녁 늦게까지 돌봐준다. 갱년기를 맞아 우울증에 시달리는 치타 언니를 위해 동네 사람들은 도롱뇽 갈비탕 집에서 '청춘 결혼식' 피로연도 해준다. 정봉이가 만든 볶음밥도 이웃끼리 나눠 먹고, 연탄이 떨어진 지하 단칸방 덕선이네 집을 위해 정팔이네 집에서 기꺼이 연탄을 내놓았다. 모두 행복했다. 가슴 저미도록 행복했다. 세월이 지난 후 그 골목에서는 커피도 탄생하

지만, 모두 하나둘씩 떠나고 빈집만 남은 동네가 됐다.

그런데 돌아켜 보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았었다. 지금은 그런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사라져 간다. 그 흔한 산소가 사라지면 더 귀하게 간절히 산소를 원하듯이 우리는 우리 곁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사라져 가기에 더 간절히 이웃 간의 정을 원했는지 모른다. 가족간에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붕괴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기사들도 접하면서 어렵더라도 사랑하며 아옹다옹 살아가는 응답하라 가족들을 보며 지금의 우리 가족문화를 다시 돌아본다.

요즘 광주시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한창이다. 응답하라 1988처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을문화를 다시 찾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공동육아로 함께 기르기도 하고, 목공예체험교실을 만들어 주민들이 모여 가구를 만든다. 또 아파트 입구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 살리기 운동을 하고, 동네에 마을기계를 만들어 사랑방처럼 사용한다. 인문학 공부도 함께하고, 풍물패를 만들고 클래식 공

연단도 만든다. 빈집 공폐가를 청소해서 동네 뒷밭을 만들기도 한다. 주민들이 모여 함께 에어로빅을 하기도 하고, 독거노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기도 한다.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서는 2월5일까지 9개 종류 사업에 37억원을 들여서 마을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구청은 중간지원조직이 이 공모 사업들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광산구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서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밀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는 떠났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하고 있다.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살려서 위대한 드라마 불씨를 현실의 우리 생활에서 다시 피우며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이다. 아아, 님은 갔지만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은편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작품 한 점 사줬다(?)



조 윤 성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학과장

이미 보편화된 예술가의 모습이다.

이제는 개인의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구조 속에 뛰어드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재능기부 전시회 등을 들 수 있다. 가까운 대인시장이나 양3동 발산마을 등은 지역의 작가들이 모여 공공미술을 통해 예술로 마을을 변화시킨 사업들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새로운 모습으로 외견상으로도든 기능적으로든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고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또한 소외된 계층이나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미술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갖게 하는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보조교사제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연말이면 곳곳의 전시공간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해 불우한 이웃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는 전시는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대학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공공미술과 아동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특화

된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 실습형 수업으로 봉사활동까지 경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조선대학교 회화학과 학생들이 2014년부터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한 '치유와 소통의 교감'이라는 전시회를 들 수 있다. 이 전시는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제작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긴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매년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해 반복함으로써 개별상담실과 교육장에 밝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주보호관찰소 본연의 선도와 교화업무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미술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긍정적인 정서순화와 공감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전시는 지역의 모 기업인을 통해 전시된 학생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새로운 메세나정신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미술은 이제 사회에서 지원받

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수단인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 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예술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은 예술가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단순화된 행정 처리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작업하고 접촉하는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과 발언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들의 창작의도에 적극적인 이해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간혹 가장 본질이 되어야 할 현장에서의 창작과 활동들이 이벤트성 행사로 격하되거나 선거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방향에서 이용당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의 간소화나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도 절실히하다.

이러한 예술가와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술가들은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안타깝게 목숨 잃은 농협직원 의사자 지정을

급박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소중한 목숨까지 내거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옛것제 강진에서 노점상 자리 시비 끝에 흥기를 휘두르는 살인범을 제지하다 생명을 잃은 50대 농협 직원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이였다. 강진군 마량면 한 농협 앞 사거리에서 이 농협의 직원이었다던 최 모(52) 씨는 김 모(52) 씨가 흉기로 노점상 A씨를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최 씨는 본인도 화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지만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외면하지 못하고 김 씨를 밀렀다. '찰떡 밀라'는 위협에도 최 씨는 김 씨와 잠시 맞서다 하는 수 없이 몸을 피했다. 하지만 흥분한 김 씨는 평소 별 감정이 없던 최 씨를 쫓아가 끝내 해를 입히고 말았다. A씨와 최 씨 모두 숨지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최 씨는 아내와 함께 사고를 당한 바

로 다음날 침선의 장모를 모시고 태극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고 한다. 만사 위로 여든을 앞둔 장모를 위해 생애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던 최 씨가 남을 도우려다 생명까지 잃었다는 소식에 주변에서는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자 강진군은 최 씨의 의사자 지정을 도울 방침이며 경찰도 최 씨가 김 씨의 범행을 말리려다가 희생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 의료 급여, 유족 취업 지원 등을 받게 되고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의사자 지정의 가까운 예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무장 양대홍 씨 등 5명이 있다. 농협 직원 최 씨의 행동 또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구청마다 달라서야

광주시 자치구의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자치구마다 교통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인데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차체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9만1906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이의신청은 1만3217건이었으며 심의를 통해 9736건이 면제됐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100건 중 1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이의신청 10건 중 7건이 면제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정별로 면제율을 보면 남구 83%, 서구 78%, 동구 73%, 북구 69%, 광산구 68% 순으로 제각각이다. 이처럼 면제율이 다른 이유는 자치구마다 구체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5개 자치구 모두가 이의 신청 심사를 담당 공무원 1명이 전담, 개인의 자의적 판단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객관적 심의 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해 면제 심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심의위원 구성할 경우 심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위 구성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서울 강북의 경우 공무원 1명과 외부위원 9명으로 '의견진술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4개 자치구는 복잡한 절차만 따지면서 예산 타당성 할 게 아니라 강북구를 벤치마킹해 심의위 구성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차가 견인된 것도 억울한데 부당한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無 等 鼓

고교 시절, 미국 록밴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처음 들은 순간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반적인 팝송과 달리 노래가 나오기 전에 한창 동안 반복되는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는 감전된 듯 전율을 느끼게 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도 그랬던 것 같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고 음악평론가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힌 적 있다. 가사를 알 거를도 없이 멜로디와 연주 테크닉에 먼저 반했는데 나중에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에서 사회성을 발견했다고도 했다.

이글스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호텔 캘리포니아는 1976년 12월 같은 이름의 앨범에 실려 발표됐다. 앨범은 '물질주의에 물들고 타락으로 치닫는 어두운 미국의 은유'라는 평가와 함께 단숨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 호텔 캘리포니아만큼 가사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낳는 곡도 없다. 가사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반어와 조롱이 담겨 있다.

"캘리포니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랑스러운 곳이지"로 가사는 시작된

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경비원이 '언제든 계산하고 나가세요'라고 했지만 당신은 절대대로 떠날 수 없어요"로 끝난다. 누구든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올 수 있는 있지만 성공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전율을 느끼게 했다.

이글스는 1970년대를 '긴장과 갈등'의 시대'로 봤고 호텔 캘리포니아에 그 시대를 담았다. 당시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평론가 로버트 힐번은 "1970년대에 만연한 자아도취와 씨름한 몇 안

되는 그룹이 이글스"라며 "캘리포니아를 국가에 비유해 아메리칸 드림의 욕망 추구 과정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를 쓴 글렌 프레이가 페럼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글렌 프레이는 드러머 돈 헨리와 함께 이글스의 창립 멤버로 호텔 캘리포니아를 만들었다. 영국의 '비틀스'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미국의 자존심, 이글스는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렌 프레이가 생각날 때면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는다. 오늘도 휴대전화 컬러링에는 호텔 캘리포니아가 연주되고 있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